

을지연습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 무주서 농촌일손 돕기 나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시작으로 24일까지 민·관·군·경·소방 합동훈련

무주군

무주군은 21일 새벽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023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무주군청 대회의실(전시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 국가중요시설인 양수발전소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무주군과 군·경·소방, 관내 주요기관 관계자들이 동참한다.

무주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을 비롯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국지도발 대비 대응역량 제고와 총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비상 시 공무원 개인과 부서, 그리고 기관별 전시전환절차 숙달상황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21일 새벽 불시에 진행된 공무원 비



2023 무주군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

상소집 훈련은 전시상황을 가정, 직원 비상연락망 가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사고자를 제외한 대상 전원이 응소해 2023년 을지연습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훈련기간 다잡은 우리의 마음과 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안전한 무주의 시작이자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매일, 매시간이 실제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전시종합상황실 근무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그리고 전경선포 후의 실제 훈련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 전시종합상황

실을 설치한 무주군은 통제부와 종합상황실 등 반 발 근무 인원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매일 연습상황을 공유한다. 또 전지직제 편성 및 기관 소산 이동, 전시참설기구 설치 및 운영 훈련을 실시한다.

22일에는 총무계획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23일에는 다양한 전경 실상을 반영한 기관장 주재 도상연습, 그리고 주민참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무주소방서 주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연계·실시할 예정이다.

24일에는 무주군과 진안·무주대대, 무주양수발전소, 무주경찰서, 무주소방서 등이 참가하는 드론 및 적 특수부대 등에 의한 국가중요시설(무주양수발전소) 테러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한편, 무주군은 2023년 을지연습을 앞둔 지난 14일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1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오는 24일까지 4일동안 '2023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훈련으로 국가위기관리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다.

훈련 첫날인 21일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전춘성 군수는 상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훈련참가자 모두 개인의 임



무와 수행절차 숙달 등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을지연습기간 동안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훈련, 전시기구 창설·운영훈련, 행정기관 소산·이동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민방공 대피훈련, 도상연습 등 공무원의 국가비상사태 대응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시행한다.

특히 을지연습 2일차인 22일에는 용담댐지사 물문화관에서 국가중요시설 대테러훈련을 실시한다. 민, 관, 군, 경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훈련을 통해 비상사태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3일 차인 23일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해 오후 2시에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을지연습은 전 군민이 함께하는 훈련인 만큼 안보의식 고취 및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진안군의 안보를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군은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 장수군 일원에서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올해로 55번째를 맞이하는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운영하며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국민 보호와 생활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경·소방 합동훈련이다.



군은 첫날 실제상황을 가정한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전시참설기구 운영 △청사 소산·이동훈련 △도상연습 △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 등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

황을 가상에 연습을 실시한다.

또한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을지연습이 지역의 안보 의식 함양과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습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생,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일한

2023년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농촌일손 돕기 프로젝트'가 오는 23일까지 무주군에서 진행된다.

무주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선태)에서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재학생들을 무주 농촌 일터에 연계해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도농 교류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 21일 무주에 들어온 72명의 학생들은 무주군민의 집에서 학생대표 선사와 안전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된 발대식에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더운 여름, 시원한 그늘 대신 땀방울을 자처 해주신 여러분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모르겠다"며 "여러분 발길이 닿는 무주군 읍·면 곳곳이 활력을 찾고 있다"면서 "무주에서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즐겁게 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농촌일손 돕기 프로젝트 발대식 모습

발대식을 마친 학생들은 무주읍에 11명, 안성면 12명, 부남면 21명, 적상면 16명, 무풍면 12명이 배치됐으며 3일간 사과 및 따기와 수확, 콩·고추 따기, 인삼발 잡초제거 등의 활동을 펼치며 농가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학생들은 "전공이 농생명과학 분야다 보니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과 일하기 때문에 걱정도 앞서지만 열심히 도와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 활동이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꾀하는데 꼭 필요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체험프로그램 신청·접수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각종 프로그램 참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전신청 접수 프로그램은 △장수에서의 1박 2일 작과의 동침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한우랑 사과랑 가요제 △전국 한우콘포 나르기대회 △장수 한바퀴 △RED푸드를 찾아라 △장수야행 등 7개 프로그램이다.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프로그램은 장수군의 대표 Red Color 농산물 중 하나인 토마토를 활용한 행사로 토마토를 던지고, 밝고 으깨며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는 놀이 프로그램이다.

'장수에서의 1박 2일 작과의 동침'은 청정한 장수의 대자연 속에서 1박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축제의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전국 한우콘포 나르기 대회'는 한우 먹이로 이용되는 대형 콘포를 나르는 프로그램으로 우승팀에게 상금이 주어지며, 직장이나 동호회를 중심으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장수야행'은 의암공원, 의암루, 논



개사당 등 장수군의 역사·문화재를 이용해 야간 경관을 체험하며 이야기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운영 후에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장수한바퀴'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즐기며 장수군 대표 문화관광지를 관광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버스를 이용해 논개사당, 논개생가, 장수 가야역사관, 장수포니랜드 등을 돌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우랑 사과랑 가요제, 전국 한우콘포 나르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 사전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접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홈페이지 또는 축제 대표전화(063-350-2350~4)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전북시민대학 시범사업 진안캠퍼스 운영

진안군은 21일 지난 7월 전북 시민대학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민대학운영 예산 약 5000만원(도비)을 지원받아, 대학과 연계한 우수 강사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주대·비전대학교와 3개의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로컬푸드와 맛남! 진안 쿡북', '드론영상 콘텐츠 제작', '골든타임'이고 운영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이다. 교육장소는 진안 사통팔달센터 및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학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품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진안군 시민대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진안군은 21일 군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공모신청은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기금사업 아이디어 제안서와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사업적합성 및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 능률성 등의 평가항목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에게는 3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20만원, 장려상 1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진안군 답례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